

ECONOMY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속도 붙는 베트남 수출...전남 특산물 등 인기몰이

지역공예분야 예비 창업자 모집 광주디자인진흥원 내달 2일까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공예분야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역 공예창업 생태계를 넓히고 해당 산업군의 모집단을 공고하기 위한 '빛고를 공예창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수 공예상품 또는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화 및 성장지원의 발판을 제공, 창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사업모델 고도화, 시장진입, 투자, 실증 등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단계별 지원하며 제품개발과 제작, 홍보와 마케팅에 소요되는 분야도 지원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지원하며, 우수 공예상품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제공해 안전한 창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창업지원금 최대 1300만원과 함께 창업기초교육과 그룹컨설팅이 병행지원된다. 사업성과에 따라 국내 주요 공예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해 지원대상자인 박은경씨(도예공방 모란 대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속에서도 사업지원이 디딤돌이 돼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도·코트라 상담회서 30만달러 계약·380만달러 협약 美관세정책에 신시장 개척...동남아 거점 확대 기대

전남지역의 농수산물품을 비롯해 화장품, 자동차 부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일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호찌민, 13일 하노이에서 진행된 베트남 수출 상담회에서 30만 달러의 현장 계약과 3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신시장 개척 전략 일환으로 전남도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현재 전남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위축된 대미 수출을 보완하고, 동남아를 새로운 수출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은 △삼고밭고파뚫협동조합(유자·석류음료) △그린가온(버섯·감말랭이·과일 등) △남도소반(파스타 오징어·감태·김페스토) △대갈농업회사법인(흑염소 진액·가공식품) △지너스인테리어(클렌징밤·스킨케어) △다시마전복수산(완도 전복·가공 제품) △푸른정식품(김·미역·다시마) △가보팍스(배추·도라지배추·별골) △해청정(해초면) △하·바이오테



전남도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는 지난 11일 베트남 호찌민, 13일 하노이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전남 농수산물 기업들이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식품 성장 촉진제·농업 유기자재) △제이비엔아이(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완도담(전복·미역 등)이다.

수출상담회에서 전남지역 수출기업들은 베트남 바이어들과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K-푸드와 건강식품,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품목이 베트남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126개 사의 베트남 바이어가 방문해 211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호찌민 상담회에서는 △완도담이 활천 등으로 230만 달러 △해청정이 해초면으로 50만 달러 △남도소반이 김스낵 등으로 30만 달러 △푸른정식품이 해조류로 10만 달러 등 총 3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했다.

하노이 상담회에서는 △그린가온이 버섯과 포도로 3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했고, △삼고밭고파뚫협동조합이 유자주스로 50만 달러 △푸른정식품이 해조류로 10만 달러 등 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성사시켰다.

이희상 코트라 동남아대응지역본부장은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로, 2024년 GDP 성장률은 7.09%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K-푸드·K-뷰티 등 한류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미국의 보편 관세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상담회가 수출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박셀바이오, 반려동물 면역항암제 출시 '주목' '박스루킨-15' 유선종양 환적서 효과...내달 동물병원서 투여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를 정식 출시한다.

17일 박셀바이오에 따르면 최근 박스루킨-15의 초도물량을 유한양행에 공급했고, 확보된 물량은 이달 말부터 전국 동물

받은 환견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종양 제거 수술만 받은 대조군보다 높은 임상 증상 개선 효과와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보였다.

또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검사와 혈액학적 검사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됐다.

향후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15의 면역항암 효과를 널리 알리는 후속 연구 및 학술 발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홍보 및 마케팅은 유한양행이 담당하는 전략을 펼친다.

특히 오는 29~30일 열리는 '2025 서울수의 춘계 임상컨퍼런스'에서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15의 면역항암 효과를 발표하고, 유한양행은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15의 적용증을 반려견 유선종양에서 림프종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반려묘 질환으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림프종 관련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박스루킨-15의 적용증을 다양한 암종으로 확장하면서 투여경로를 다양화해 편의성을 개선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박스루킨 판매처를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넓히기 위해 대륙별로 특화된 수출 전략 모델도 개발 중이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사람과 도시

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음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도로사업부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결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

빛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881등급 보도용 방호 울타리(설치위주)
기초공사가 필요 없이 공사비 절감
보행자를 방호울타리 경용(기준안락)
보도폭 확보 용이

빛물저류 침투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공극률 95% 이상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분리 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한길산업 (주)한길산업

본 사 1(광주) 전남 광평군 화교면 화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무소 2(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당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유엔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

“지역 중기협동조합 현안 해소·위상 제고 노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3연임 성공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주혜슬이스콘 대표이사·사진)이 3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세번째다.

17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역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역 중기중앙회를 대표하는 50여개 업종별 중기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중 선출되며, 임경준 회장은 최근 지난 9·10대에 이어 11대에서도 단독 추대됐다.

특히 임 회장은 전국 13명의 지역 회장을 대표하는 지역회장협의회회장에 도 재연임에 성공, 지역 중기기업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A). 농식품,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한 협동조합을 설립 확대하고, 협동조합만의 특화 공동사업의 특화 공동사업들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협동조합 지원예산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제품 판로 확대를 통해 수도권과의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 중기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한다.

임경준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지역 중기기업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 중기기업 및 중기기업협동조합의 현안 해소와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 출범...“산재 예방 총력”

사외인사 3명 위촉 대표이사도 참여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산업재해 예방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사외인사 3명 위원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분기별로 1회 국내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며, 매년 2·4회차 회의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

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원회 출범식

2025. 3. 14. (금) 10:00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는 사외인사 안전자문 위원 3명을 위촉했다. (왼쪽부터) 이봉호 금호타이어 SHE기획팀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김용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관리총괄 부사장, 이동경 우송대 교수, 윤선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장.

할 예정이다. 국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한 안전환경·문화 조성

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와 토론을 가졌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ESG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